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시편 134:1~3)

1.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3.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제목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자녀를 다 키워 시집장가 보낸 은퇴한 부부가 있습니다. 명절이 되어 자녀들이 찾아올 날이 가까워 올수록 이것저것 준비하고 마음이 설레기까지 합니다. 손꼽아 기다리던 그날이 되어서 자녀들이 손주를 데리고 방문하면 무척 반가워하십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을 터질 듯이 껴안고 뽀뽀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면 부부의 정돈된 집은 난장판이 됩니다. 이런 저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사사건건 신경 쓰느라 잠을 설칩니다. 2~3일 사이에 피곤이 쌓이고 눈 밑에 다크써클이 생길 지경입니다. 이제 마음은 자녀들이 얼른 돌아가기를 기다립니다.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는데도 명절 때마다 같은 마음입니다. 오면 좋은데 가면 더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고자 하는 것과는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오면 좋다는 점에서는 같고 가면 더 좋다는 점에서는 내용이 다릅니다. 부모님의 이 마음을 하나님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는 방식은 어떨까요?
이사야서 49장 15~16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부모는 자녀를 잊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선민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처럼 잊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사랑하시는 선민들을 향해서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은퇴한 부모님에게는 자녀들이 형통하고 무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복은 무엇일까요?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의 주관자

이시니 세상의 형통 따위가 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작자 미상의 본 시는 성전으로 가는 마지막 노래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복이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드림으로써 복을 누리실 수는 없습니다. 이 노래는 15편에 걸쳐 진행되어온 성전으로 가는 노래를 세 절로 총괄요약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이 성전에 오면 좋아하시고, 성전을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더 좋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성인 남자는 반드시 성전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성전에 찾아오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제 성전을 떠나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더 기뻐하십니다.
우선 1절을 보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였습니다.
'송축하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라크'라는 히브리어로 일반적인 찬송을 뜻하는 할렐루야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시편 104편을 비롯한 이전 말씀에서 이미 설명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은 성전 사역을 위해 부름 받아 세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일반 백성은 성전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식과 행사를 마친 후에 귀가하거나 정해놓은 숙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의 기간은 7일 동안 거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남은 이들은 밤에도 계속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상태임을 염두에 두고 송축하라는 단어를 살펴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송축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단어는 '축복하다, 복을 빌어주다, 축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며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여호와께 어떻게 축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밤에 송축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 복이 될 만한 일이 밤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상황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이 될 만한 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실만한 일이 밤에 생깁니다.
밤의 의미는 각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이들이 참여한 예식과 의식이 끝난 시점을 말합니다. 즉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모든 목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밤에 송축하라'는 말씀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재해석해보자면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을 떠난 뒤에도 여호와의 종들이여, 그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일어나도록

축원하고 기원하기를 그치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이 되고 기뻐하실만한 일이 밤에 발생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복'이란 곧 마음의 만족과 기쁨입니다. 만족과 기쁨이 지속되는 행복한 마음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 인해 기쁨을 누리시지는 않지만 기쁨자체는 똑같이 느끼십니다. 기뻐하실 수 있고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심은 선민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남을 상징하는 밤에 생겨나는데 그 힌트가 2절입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임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도 마음은 성소를 향해 고정한 채로 살아갈 때에 더 기뻐하십니다. 성전은 단순히 사람들을 모이게 하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떠나서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상황에서 마음에 성전을 담고 살아가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성전을 찾는 것보다도 이렇게 마음에 성전을 담고 살아감을 더욱 기뻐하십니다.
일 년에 세 번씩 성인 남자는 성전을 방문해야 했던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다보면 마음에서는 성전을 잊어버립니다. 성전이 들어와야 할 자리에 돈이 들어오고 가족이 들어오고 사업 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 년에 세 번씩 직접 성전에 와서 예식에 참여함으로 오감으로 느끼면서 마음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라도 마음에서는 성전을 잊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에게 자녀와 연관된 일이 기쁨이 되듯, 하나님도 자녀 삼으신 선민들에게 같은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들이 성전에 모이시면 좋아하시고, 이들이 흩어져 나가 살면서도 성전을 잊지 않을 때에 더 좋아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세상의 가치를 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처소인 성전을 마음에 담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봅니다. 1절의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말은 내용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성전을 떠나갈 것이지만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성전에 남아서 계속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결코 잊지 않고 살도록 기도해주십시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례자들의 마지막 노래인 것입니다.
순례자들은 성전에 올라와 모든 예식을 마쳤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일이 남았습니다. 더 좋아하실 일을 위해서 성전에 남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에 몸과 마음으로 느꼈던 성전에서의 모든 경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송축하라'는 말이 지닌 뜻입니다.

이어서 3절을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1~2절이 순례자의 목소리였다면 3절은 성전의 제사장이나 레위사람들의 목소리로 번갈아 부르는 교창입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소위 모태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임에만 힘을 썼지,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흩어짐에 대해서는 배운바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을 통해 지금의 사건으로 만나기 위함입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에 복음적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의 어떤 부분을 취하더라도 십자가로 가는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모든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포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십자가를 마음에 각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인된 십자가를 붙잡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하십니다. 마음으로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나의 육신이 처한 어떤 상황보다도 우선적인 현실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피조세계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가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나라가 뒤집힌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보다 급박하고 중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라가 뒤집히는 것보다도 십자가 사건이 우선적 현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선적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전제로 하고 상황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이는 곧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우리가 머리로 판단할 수 없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또한 손과 발이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는 손댈 수 있는 일이 없고,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옆구리에 창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을 채울만한 소원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이 채찍에 맞아 찢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좋아하고 사랑할 때 그것들은 마음의 살이 됩니다. 그것들이 찢어져 나갔음은 세상 가치와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이 십자가의 상황을 우선적인 현실로 삼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맞이해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활동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이 행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나의 소원이 되

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본문 3절에서 말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라는 말씀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봄이 중단되면 이 세상의 일들이 들어오는 틈이 생깁니다. 세상이 먼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할 일은 세상이 들어온 마음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세상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힘이 듭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전 말씀에서 짊어짐을 "휠체어 장애인, 십자가 장애인"이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전죄를 타고난 장애인입니다. 유전죄 장애인이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 휠체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리가 불편한 사람에게 휠체어는 가끔 이용하는 장신구가 아니라 필수품입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삶에서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빌어드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곧 하나님께 복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십자가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임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마음의 유일한 만족과 기쁨이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교회 안에서 설교 들을 때는 물론이고 거래처에서 계약할 때에도, 고객에게 물건을 팔 때에도, 자녀문제로 배우자와 의논할 때에도 이 믿음이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즉 삶의 모든 방면에서 이 믿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 하나님 외에는 나의 기쁨과 만족의 대상은 없다. 하나님은 오직 십자가에 내 마음이 머물 때에만 만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예배당에서 나가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예배당은 사람들이 몇 천 명씩 모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모임으로서의 본래 목적은 충족됩니다. 우리의 과제는 몇 천 명의 사람이 들어갈 예배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세상에 흩어져서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십자가로부터 하늘까지 이어지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 공간에는 세상에 대해 죽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의 마음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임을 위한 공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누군가의 집이 지역모임의 장소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보면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6장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라고 하였고 19절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 시 전체가 교회인데 예배당을 따로 갖지 않고 이들이 가정에서 소규모로 모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큰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두 세 사람이 모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문제는 서로의 마음에서 십자가를 확인함으로써 십자가로 인해 얻어지는 상승효과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모임의 목적은 세상에 나갔을 때에 바로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에서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밤에 성전에 남아서 여호와께 복을 빌어드리는 제사장과 레위사람들처럼 우리는 매일 아침 오늘의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면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가면 더 좋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께 복이 되는 일을 위하여 이제부터 세상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어떤 상황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첫 번째 내 사건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통제와 개입하심을 넘어 주관하시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